P
205
7233
제1호

高神會報

THE BULLETIN OF KOREA THEOLOGICAL SEMINARY

〈제 1 호〉 1980. 12. 1.

(목 차)

■ 창간사 …… 박 은 조 … 2
■ 격려사 …… 오 병 세 … 2

특집 學會活動의 現況과 展望

• 학회결성 두 돐을 맞이하여 …… 송 제 근 … 3
• 구약 학회 …… 이 윤 재 … 4
• 신약 학회 …… 전 성 준 … 5
• 이론 신학회 …… 전 광 식 … 6
• 역사 신학회 …… 이 상 열 … 7
• 실천 신학회 …… 이 정 우 … 8
• 선교 신학회 …… 김 영 수 … 9
• 타신학대학 학회활동을 둘러보고 …… 편 집 실 … 11

■ 희망의 대화 / 고신의 미래상 …… 편 집 실 … 14
■ 동문논단 / 기독교 교육의 이념과 전망 …… 강 용 원 … 16
◇ 학우회 사업계획 • 임원 명단 …… 18
◇ 고신 저널 …… 19
• 서평 / 하나님의 선교 …… 최 광 석 … 20
• 신학단상 /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 이 보 민 … 22

창간사

기름진 꼴을 준비하는 능력을

학우회장
박 은 조

일찌기 고려신학교 학우회가 펴냈던 파수군이 교단지가 되어 합동측으로 넘어간 이후 고려신학교의 언론지가 없던 차에, 신학대학원 인가에 때를 맞추어 高神會報가 발간됨을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고신회보는 무엇보다도 구약, 신약, 이론역사, 실천, 선교등 학회들을 돕는 학술지의 사명을 다해보려 한다. 학회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학우들의 좋은 연구결과를 전 학우가 함께 나누어 가짐으로 연구하는 분위기를 북돋우며 또한 연구 의욕을 높이는 것은 학풍 조성에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신학교 3년 세월이 라이센스(license)를 따는데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과정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맡기실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소임을 잘 감당하며 윤택하고 기름진 꼴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하나 高神會報의 소임은 이 지면들이 학우 사이, 제자와 스승 사이, 그리고 선배와 후배 사이를 하나로 잇는 다리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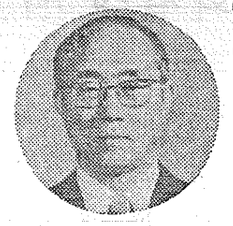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참 많은 사람들, 특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하는 일이 아닌가. 하나되기 위해서 서로 공통의 체험을 고신회보를 통하여 나누어 가지는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

일찌기 대학 시절에 신문과 학예지의 편집경험을 쌓은 편집진이 갖추어짐은 고신회보 내일이 밝은 징후라 여겨져 더욱 감사한 마음이다.

편집팀 여러분들의 분투를 빈다.

격려사

會報를 通한 神學的 Communication의 역할



大學院長
吳 秉 世

하나님께서 사람과 Communication을 가지시기 위해서 啓示를 許諾하셨다. 이 啓示의 初步的인 것이 口頭의 啓示, 곧 言語로 된 啓示이다. 그러나 더 正確한 啓示로써 記錄된 啓示를 주셨다. 사람도 어린 아이 때는 말로만 의사표시를 하나 長成해서는 글로서도 表示한다. 이렇게 언어와 글로 Communication하는 것은 다른 動物에는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진 特典이다.

이 正確하고 効果的인 Communication을 위해서 우리 學友들이 會報를 發刊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말하기는 쉬우나 글을 쓰는데는 時間이 걸리고 精神을 集中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해 버리기 보다는 힘이 드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이 會報를 通해서 글쓰는 學友들이 많이 나타나고 Communicaion이 더 잘 되기를 바란다.

이 神學的 Communication에 있어서 基礎神學과 應用神學의 均衡있는 發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神學은 聖經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으며, 그 뜻이 무엇이냐?고 하는 註經神學과 聖經의 간추린 教理가 무엇이냐?고 하는 教義神學(組織神學)과 또 教會가 聖經을 歷史的으로 어떻게 理解해 왔느냐? 하는 歷史神學이 있다. 이들은 基礎神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通해서 理解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사람에게 適用하는가? 하는 應用神學(實踐神學)이 있다. 基礎神學이 튼튼하지 못할 때 아무리 應用을 잘 해보려고 해도 土臺가 없으니 利用할 수가 없으며, 基礎神學만 튼튼히 해도 應用이 잘 되지 못한다고 하면 Communication이 되지 않을 것이다.

外國의 境遇를 보면 保守主義的 神學에서는 基礎神學이 强하나 應用하는 技術이 없어서 貴한 福音을 가지고 있으면서 Communication이 안되어서 教會의 發展이 늦은 것을 본다. 그러나 反面에 自由主義的 神學에서는 應用하는 技術은 잘 가르치면서도 傳할 內容이 貧弱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Communication의 內容도 착실하고, 또 이것을 適用하는 技術도 잘 習得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會報가 貴한 功獻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학회결성 두 돐을 맞이하여

(학우회학술부장) 송 제 근

오래 전부터 학회의 필요성을 다들 절감하여 왔던 것 같다. 그것은 다른 신학교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하겠는가 하는 심리에서 보다 **복음의 전파를 위한 연구자세의 확립**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에서 나온 것이리라 생각된다.

지난 1년간 시작해 놓고, 부딪쳐 보자는 시행착오를 각오하면서 첫발을 내디딘 것이 이제 제법 나약하지만 바람직한 성숙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는 통계상으로 3분의1 정도의 학생이 참석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참석한 대부분의 학생들 속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해야 한다」는 의지가 우리가 무엇을 하겠는가는 패배의식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학회활동과 연구하여 영혼을 구하는 자세의 확립에 밝은 빛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의 자치활동이 잘 이루어 질 수 없는 학교 외적인, 또한 내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뚫기 어려운 벽이 우리들 스스로 속에 숨어 있는 우리에 대한 **조소적인 생각과, 복음의 말과, 그 능력에 대한 이중성에서 생기는 괴리감과 우리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데에 나 자신이 먼저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송도의 고려신학교에 그저 모이게만 하신 무리가 아니라 참된 성도와 무리로 삼으신 것은 분명하고 정확히 알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일들이 사실 모든 활동에 전제되어야 할 것 같다.

학회에서 만나고 또 발표하고 질문하는 바로 옆 사람이 별 볼 일 없고, 또 그런 그런 학력이나 경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도외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위한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라는 **동역자적 관점에서 분열되고 이중적인 면을 갖지 아니하는 눈을 가질 때에만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의 神學이라는 門에의 도전은 일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연령적으로 늦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매일 매일의 일선 목회의 문제들을 학문적으로 思考하고 처리하는 습관에 익숙해 있지 못한 가운데 시작해야 하는 우리에게, 조직적으로 사고하기 전에 **직관적으로 교회문제들을 처리해 버리고 흘러가는 풍조대**로의 목회 방향 속에 너도 하니 나도 한다는 식의 교회 운영을 하는 선배들에 둘러싸인 우리에게 이 미미하게 시작되는 학회활동은 분명한 하나의 도전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를 격려해 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번 학기, 그리고 매학기마다 각 학회에서 조그만 성의를 모아서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학기에 한 번씩 학술제를 한 학회씩 맡아서 해 나갈 것이다. 내년 1학기는 선교학회에서 맡아서 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수들이 초빙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활동 하나 하나를 하기 이전에 그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부정적이거나 자기 도피적이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표하는 친구의 표현이나 내용이 상투적으로, 혹은 아중적으로 수용하지 아니하는 분위기를 위해서「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럴 때에 학문과 실천이라는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 쉽게 열리고 우리들 사이에서도 따뜻한 형제의식이 생김과 동시에 하나님 당신이 바라시는 일들에 쉽게 동역하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끝으로 학회라는 제도 이전에 복음으로 인한 따뜻한 가슴이 먼저임을 잘 알고 학회 두 돐을 맞이하자.

구 약 학 회

학회장 이 윤 재

1. 구약연구의 중요성

현하 교회들의 성경에 대한 관심은 신약에 치중되어 있다. 구약은 신약의 보충적인 관점에서 해석되고 사용되는 경향이 많은 것같다.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구약의 성격과 의미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것이 구약연구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구약없는 성경을 생각할 수 없듯이, 구약없는 신앙 역시 이율배반적이다. 구약은 신약의 특정 사건을 설명할 때 편파적으로 보충되는 참고서적 쯤으로 간주되고 있는 오류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의 구약적 강조가 현시대의 우리들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2. 구약연구의 추세와 동향

구약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위기를 맞게 된 것은 19C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無時間性의 전통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문학적 산물의 관점에서 비평됨으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만연한 비평주의 속에서 구약의 권위는 인간의 판단에 사정없이 난도질되었다. 비단 이것은 성경학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학문의 다각적 측면에서 논구되고 있다. 사회학, 역사학, 인류학, 심리학 등의 견지에서 인간문화의 보편성을 가지고 구약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구활동의 의도는 구약이 하나님 계시라는 것 보다도 인간의 책이라는 데 있다. 다행히 20세기의 후반에 들어서서 구약에 대한 하나님 계시의 역사성을 회복하려는 신학적 시도가 있었다. 이것을 소위 신정통주의(Neo-Orthodoxy)라고 말한다. 이것은 과도한 비평주의에 대한 지적 저항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들의 관점이 엄격한 하나님 계시의 권위에 기초하지 않았음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그러므로 보수성에 입각한 우리들의 구약활동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 계시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 가일층 진력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3. 활동방향 및 사업계획

앞서 말한 바 구약에 대한 현대적 관점이 하나님의 권위를 유린하고 있는 데는 그들의 출발이 신앙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 신학도들은 더욱 확고한 신앙의 기초 위에서 성경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즉 구약에 대한 이상적인 탐구는 신앙과 학문의 조화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학회는 경건한 사고를 함양함으로 지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균형잡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구약학회 활동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① 서적소개 및 비평(Book Review) ; 회원들이 분담하여 새로운 신학적 사조를 담은 책들을 발췌 소개함으로 폭넓은 지식정보를 나누고자 한다.

② 주제발표 ; 구약신학에서 문제점이 되는 주제나 관심있는 주제를 선정된 회원이 연구 발표함으로 신학적 연구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보수적 신학관점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③ 강사초청 ; 국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구약학자를 초청하여, 폭넓은 지식에 접할 기회를 갖고 우리 신학의 반성과 정립을 효과적으로 돕는다.

④ 원문강독회(Hebrew Reading Club) 운영 ; 구약의 원어를 강독하는 훈련을 함으로 구약과 더욱 친밀해지고 자발적인 연구 습관을 기른다(매주 목요일 오후 4시. 702호)

⑤ 번역출판 ; 외국의 구약에 관한 저술을 번역하여 한국 신학계에 외국의 신학동향을 소개함으로 신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⑥ 경건활동 ; 이상과 같은 학구적 연구활동 외에 영적 생활의 함양을 위해 원문강독회(Hebrew Reading Clua)의 시간을 통하여 경건회를 가지며, 특별히 방학중 교외에서 월1회의 기도회를 갖는다.

〈21 페이지에 계속〉

신약학회

학회장 전 성 준

형제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같은 믿음의 뿌리를 자랑하는 동역자들이 더구나 함께 20代의 청춘을 이 암남동산에서 울고 웃으며 지내는 동안에 학회활동을 통하여 같은 체널을 맞추어 본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요!

성경증에서도 그분 주님께서 왜 오셨으며, 어떻게 오셨으며, 어떻게 사셨으며, 무엇을 남겨 놓으셨으며, 사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증거하고자 했으며, 세상의 종국을 어떻게 계시받았는가? 그것이 신약이라면 또 그게 바로 신학도의 평생의 연구 분야와 증거의 全體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한가?

선배 박 윤선 목사님께서 진하게 그어주신 굵은 선——주님과 바울과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 그리고 메첸과 신앙의 순결을 이 암남동산에 물려 받은 고신인까지——우린 여기서 신학의 맥락을 찾아야 하리라 믿는다.

그런데 오늘날 옵에게 도전했던 세 친구처럼 신학의 껍데기를 쓰고 파헤쳐진 이 많은 독물들——역사적 예수탐구, 구전의 형태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양식비평, 종교사학파, 근래의 재편집 시도의 편집사학파——이 남은 세대에 우리들 만이라도 지키고 전승시켜야 할 책임을 새롭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믿는다.

신약학은 결코 뜬 구름잡는 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의 목표요, 더구나 목회자의 생활의 최고 수단이며 영적 생활의 원천이며, 힘인 것이다. 또 그것을 흘어져 있는 양 무리들에게 가르쳐 참 삶을 알게 함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일진대 여기에 학회의 촛점이 맞추어 지리라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학회는 여기서 연구 방향을 제시받는다. 신약학의 분야는 신약성경의

1. 서 론
2. 언어와 정경
3. 역사와 중심사상
4. 해석의 원리에서 주석, 석의
5. 신약신학이 된다.

본 학회는 이번 학기 남은 몇시간은 orientation으로 끝맺고 새해에는 우리들이 늘 직면하는 해석의 원리, 주석의 사례, 그리고 Bible Study의 인도사례, 연구자료 등을 중점으로 연구 발표하되 누구나 부담없이 한시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물리없이 평이하게 진행하고저 한다. 실수가 허용되는 모임의 전통을 만들고싶다. 진정한 성장은 시행착오 끝에 도달하는 것임을 확신하기에 늘 대증의 편에서 향토색 짙은 언어구사와 또 그렇게 사시는 박 성복 교수님과 함께 풋고구마라도 나누는(11.19. 모임) 정담이 있는 모임을 만들었으니 계속 그렇게 만나서 진행되리라 확신한다.

오는 겨울엔 회원들이 1박2일로 모여 두터운 외투라도 걸치고 어느 촌장, 이를테면 풍각이나 청도 장날에 만나 두리번 거리며 만남을 기다리기로 했으니 여러 동역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꺼이 기다려 본다. 잊어버린 정담과 고향의 내음새도 찾으며, 학회활동의 연장으로 먼 훗날 당회장이 되더라도 계속 되어지기를 바래면서 함께 일하는 회원을 열거해 본다.

전 원호 회장을 비롯한 3학년 분들을 보내고 송 제근, 전 성준, 김 위수, 주 일성, 정 도헌, 김 정호, 이 순진, 김 맹돌, 김 삼송, 이 종수, 허 복구, 김 성룡

아직 빈자리를 더 남겨 두고 본고를 끝맺는다. 할렐루야!

이론신학회(理論神學會)

학술간사 전 광 식

Ⅰ. 취 지

i) 이론신학분야의 改革主義正統思想을 보다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 이해, 습득하며

ii) 이론 신학분야의 세계적인 最近動向을 소개, 비판, 대처하며

iii) 나아가 高麗派 神學의 개혁주의적 이론신학을 改革的으로 정립해 가려는 작은 디딤돌을 이루는데 있다.

Ⅱ. 최근 연구 동향

사상사적 맥락에서 現代를 조명하여 볼 때, 현대는 logos와 cosmos의 시대가 아니라, pathos와 anarchy의 시대요, chaos의 시대이다. 神學의 흐름도 이와 같은 성격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현대는 신학의 범람시대요, 春秋戰國시대이다.

60년대 초에 世俗化神學(Secular theolgy), 死神神學(The Death of God thelogy)이 등장한 이래 解放의 神學, 정치신학, 祝祭의 신학, 過程神學, 생태학적 신학, 흑인의 신학, 民衆의 신학 등 여러 유형의 신학사조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諸신학적 경향은 당연히 이론신학의 카테고리에서 취급되어질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현대의 이론신학의 경향을 다음 세가지 점에서 특색지어 본다.

a. 'inter'의 문제—이것은 각학문 영역이 독자적으로 존립, 연구 발전되지 못하고 특히 현대에 와서 근접한 타영역과의 관계하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론신학도 현대에 와서 타 신학분야와 긴밀한 관계성을 이루고, 그 관계성에서 이론신학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Wihelm Dantine이 실천신학과의 관계성에서 이론신학을 논한 것 등이다.

b. 'in'의 문제—이것은 context(그것이 사회적이든, 사상적이든 간에) ' 따라 text를 解釋, 再組立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狀況性을 강조하고 이론신학의 狀況化(Contextualization)를 내게 된다. 여기에서 이론신학의 機能性이 강조되게 되었다.

c. 'at'의 문제—이것은 諸 학문의 발전에 따라 학문적 地平(horizon)이 많이 등장한 것에서 비롯된다. Dooyeweerd식으로 얘기하면 各 法領域(law-sphere)을 하나의 지평으로 삼아 이론신학을 그러한 프리즘을 통해 조명해 볼려 하는 경향이다. 이런 경향은 통합적인 이론신학의 수립이 힘들고 전파적이며, 일방적이기 쉽다.

Ⅲ. 활동 방향

본 학회 活動의 대체적인 방향은 ① 학적인 지식 획득을 위한 硏究, 발표토론의 모임을 가지며 ② 이론신학 안의 소분야별로 그룹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이며, 전문적으로 연구 조사하며 ③ 최근의 흐름에 맞추어 신간서적의 서평, 초청 강연, 심포지움을 가지며 ④ 회원간의 친교와 유대를 공고히하는 행사를 가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Ⅳ. 활동과 연구실적

- 1979. 9. : Symposium. 「敎會와 國家」(발표자—박 삼우, 조 종현, 유 해무)
- 1979. 9. : 이 보민 지도교수 특강—基督敎倫理學의 최근 동향
- 1980. 4. : 硏究發表—전 광식 'Kant의 인식론을 통해서 본 현대 신학의 神論 비판'
- 1980. 5. : 이론신학의 각분야 소개(변증학—주 원명, 기독교윤리학—이 상욱, 기독교철학—유 해무)
- 1980. 6. : 연구발표—전 광식 'Amsterdam 哲學考'
- 1980. 10. : 연구발표—주 원명 '시편 84:1에 나타난 敎會論'
- 1980. 11. : 연구발표—김 희택 '暴力에 직면하는 기독교인의 行爲倫理에 대한 고찰'

Ⅴ. 앞으로의 사업계획

80학년도 후반기—졸업반 회원이 졸업논문 초록을 발표하며, 또한 이 보민 박사, 박 도호, 고 재수 선교사 등 교수 초청 특강을 가진다.

- 동기방학—이론신학분야의 한 주제를 택하여 연구노트를 작성키로 함.
- 81학년도 전반기—제 2회 Symposium 개최, Text 강독 및 연구, 서평, 독후감 발표, 연구노트 발표 가질 계획

Ⅵ. 회원명단및 조직(80. 11. 1. 현재)

- 학 회 장 : 유 해무(2)
  학술간사 : 전 광식(2) 이 광수(1)
  사무간사 : 김 금용(1)
- 회원 : 3학년—김 희택, 주 원명, 최 한주
  2학년—이 상욱, 전 광식, 유 해무, 김 낙춘, 허 창수
  1학년—장 창원, 이 필수, 우 영종, 염 덕철, 김 대롱, 곽 용동, 김 금용, 김 성규, 전 문, 김 갑수, 최 창규

역 사 신 학 회

학회장 이 상 열

역사신학의 필요성

歷史神學의 필요성을 논한다는 것은 매우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오늘의 神學이 갖는 최대의 관심사는 '福音의 歷史化' 문제다. 敎會가 知的, 經濟的, 社會的 발전에 뒤따르지 못하고 19세기의 사고방식에 매달려 있다. 그러므로 現實을 분석하여 福音으로 대처하는 歷史的 狀況處理 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식의 안일한 도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W.Stanford Reid가 복음주의적 保守敎會에 울린 경종이 그의 저서 「EVANGELICAL DEFEAT BY DEFAULT」(태만에 의한 복음주의자들의 실패)에서 잘 지적하고 있는데 "福音主義敎會가 실패한 것은 오늘의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現代敎會는 福音의 客觀的 眞理性은 강조하면서 역사적 適用을 게을리하고 있다. 더우기 기독교회의 信仰과 역사를 철저한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기록한 저서보다는 歷史性을 무시한 自由主義的 神學思想의 책들이 홍수처럼 밀려와 正統的 信仰의 神學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現時點에서, 본 歷史神學會의 존재의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역사신학의 임무

역사신학(Historical Theology)이라고 하면 흔히들 과거의 年代記的 지식을 얻기 위한 학문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때 그 問題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오늘의 狀況과 우리의 문제와 관계지어 해결해가는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하는 學問이다.

歷史를 볼 때 체험적이고 垂直的인 면과 전통적이고 水平的인 면을 잘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救贖史的인 안목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 사람이 실수하여 교회가 分裂돼도 하나님의 손이 일하여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구속사적 한 點이 바로 나 자신이며 나의 存在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役事를 이루어 나가는데에 쓰임받는 道具라고 생각할 때 기쁨과 감격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역사신학은 신학의 제분야중에서도 理論神學과 實踐神學을 연결시켜 주는 橋梁(BRIDGE) 역할을 하고 있음으로 모든 신학의 求心點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역사신학의 연구분야는 基督敎會의 신앙과 역사를 歷史的으로 취급한 敎會史(The History of Church)와 敎理와 信條를 취급하는 敎理史(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그리고 독특한 神學思想을 취급하는 思想史 (The History of Theolgy Thought)를 그 대상으로 한다.

기독교회는 오신 메시야와 오실 메시야를 믿는 신앙과 역사이고, 福音의 不變性과 現實性을 갖고 복음의 저해 요소를 聖經的 次元에서 연구 검토하여 제거시키고 純粹한 복음을 保存, 傳播하는 宣敎的 使命을 감당하는 것이 歷史神學의 임무인 것이다. 역사신학은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과 교리를 분명히 제시하여 어떤 異敎나 共産主義에 침해당하지 않는 기독교의 진수를 모든 영역에 심어줄 사명이 주어져 있다.

이 重且大한 사명을 띄고 본 역사신학회가 출범하였으나만치 복음전파의 召命을 갖고 신학교에 들어선 학우 여러분의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아낌없이 있기를 바란다.

연구 활동 방향

먼저 實踐이 있는 학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한 회원이 연구과제에 따라 한 학기에 한 편 이상의 논문을 작성, 제출토록 하여 학회보에 게재하여 그 열매를 他學會 학우들과 함께 나누도록 힘쓸 방침이다. 또 가능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역사신학에 해박한 학식을 쌓은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특별강의를 듣게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연구방향에 힌트를 얻고 연구의욕을 고취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자 한다. 한 달에 3시간은 회원의 연구발표시간으로 할애하여 book review, 최신 연구동향 소개, 토론회 등을 가져 센시티브한 모임으로 항상 발전하는 자세를 과시할 것이다. 그리고 힘이 자라면 원서번역, 역사신학관계, 문헌목록 작성, 책자 편집등도 추진하여 이 방면에 관한 경험을 정리 축적하며, 출판사업이 부진한 우리의 실정에 학풍 조성과 학술 진흥을 위한 조그만 자극제가 되므로서 힘찬 전진을 멈추지 않을 작정이다.

〈21 페이지에 계속〉

실 천 신 학 회

학회장 이 정 우

1980년 1學期와 더불어 더욱 더 활발히 움직이게 된 본 학회는 타 학회보다 관심을 모으는 회원들이 특별히 많다는데 특징이 있다. 뿐 아니라 硏究분야가 광범위하다는데도 그 특색이 있다 하겠다. 이에 本 會는 몇개의 部, 즉 「목회연구부」와 「전도 연구부」로 세분하여 알차고 효율적인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 點에 있어서는 장점 못지 않게 단점도 發見 됨에 따라, 세분화된 조직을 통합하여 현재는 통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면을 빌어서 本 實踐神學會의 취지 및 성격과 方向등에 關해 살펴보고자 한다.

1. 學會의 취지 및 성격

理論없는 實踐은 튼튼하지 못하고 실천없는 이론, 그 또한 허구한 것이다. 상아탑 속에서 교수님과의 學的 硏究도 더 없이 중요하겠지만 본 학회는 이 學的 맥경을 토대로 실제 일선에서의 문제점 등을 硏究討論하여 실제의 목회전선에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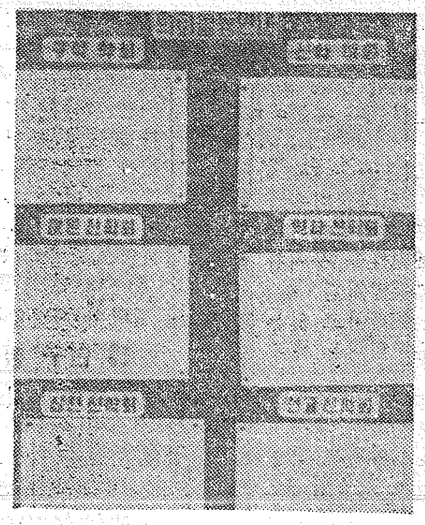
따라서, 本會는 교파를 초월하여 각 파의 人物을 초빙하여 그들의 장단점을 예리하게 분석, 검토하여 정확한 方向 설정과 함께 하나님의 참된 목회자가 되는데 우리의 힘을 쏟을 것이다.

2. 학회 활동의 방향

會員 모두에게 硏究과제를 주어 연구케 함으로 會員 모두가 참여하는 方向으로 추진할 것이다. 뿐 아니라 참신한 목회자상을 회원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일선 목회자를 모시고 실제를 듣고 동시에 모의 목회 활동도 시도할 방침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學的인 理論을 바탕으로 실천신학을 硏究할 방침이다.

3. 연구실적

1학기는 여러 外的인 요인으로 인해 學會 活動이 부진했는데 그 중에서도 3명의 회원이 발표회를 갖기도 했다.



4. 사업 계획

11월 19日에는 "목회자와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육군대학에서 목회하시는 김 홍태 목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가졌으며, 앞으로는 설교, 심방 및 행정 방면에 유능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실 계획이다.

방학중의 계획으로는 회원중에서 수명이 대도시를 中心으로 순회하면서 목회 전반에 걸쳐 취재 연구케 하며, 새학기에는 이것을 토대로 연구, 토론할 예정이다.

끝으로 벅찬 과제들이 없지 않으나 기도하면서 이 學會의 뿌리가 굳건하게 내려, 꽃이 피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까지 달려 갈 것이다.

5. 회원 명단

- 2학년 : 이 정우, 박 영준, 유 익수, 김 학우, 이 내용, 박 인환, 이 정화, 박 관호, 장 지철, 김 원기, 신 승구, 오 재묵
- 1학년 : 김 춘부, 강 성렬, 김 무웅, 남 노희, 박 광실, 박 윤환, 박 종기, 안 태석, 이 유량, 이 경렬, 전 용출, 정 영철, 조 성, 조태환, 최 상혜, 허 상회

선 교 신 학 회

학회장 김 영 수

1. 성 격

선교는 교회의 필연적 활동영역으로 항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신학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Salvation by faith)에 대하여 교회가 다시 깨닫도록 하기는 하였지만 이 깨달음을 교회의 세계선교 사명에다 관련시키는 일은 게을리 하였다. 윌리엄 캐어리(1792년) 이후 현대 선교시대의 휘이 열리고 선교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문제가 대두되자 선교이론을 체계적으로 취급해야 할 필요가 요청되었다. 최초의 선교분야의 종합적인 논문은 구스타프 바르넥(Gustav Warneck)의 「복음적 선교학」(1897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선교학의 등장은 1965년 D. McGavran에 의해 Fuller 선교신학원이 설립되면서부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자 세계선교에 책임감을 느끼며 관심과 열의를 나타내고 있다. 많은 교회와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에 참여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선교 기운을 건전한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이론으로 바르게 지도하고 시행해야 할 절박한 필요를 또한 느끼고 있다.

본 학회에서는 교회의 선교에 개혁주의적 이론과 정책을 연구하고, 세계 선교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미래에 초문화 선교 일군으로 봉사할 헌신적 인재양성과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활동한다.

2. 현 황

지도교수로 전 호진 박사님을 모시고 학회장 김 영수(2년), 총무 김 종국(1년), 서기 이 헌철(1년), 회계 권 은순(1년) 외 회원 11명과 업저버 2명이 있다. 그리고 세계를 7개 문화권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문화권별 Study Group을 조직 연구하고 있다.

〔문화권별 Study Group〕

① 불교권—권 은순, 서 은숙 ② 회교권—김 종국, 박 은생, 정 찬수 ③ 힌두교권—이 신철 ④ 공산권—최 광석, 이 상룡 ⑤ 중국권—김 영수, 윤 종근, 이 헌철 ⑥ 로마교권—김 병수, 심 상법 ⑦ 아프리카—박 영기

4. 활 동

a. 자료수집 : 선교연구에 주요한 자료들을 복사해서 분류 보관해 가고 있으며, 선교학에 관계된 자료목록(Bibliography)들을 작성하고 있다. 또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선교 간행물들을 신청 구독하고 있다.

b. Study Group 연구 : 지난 학기간 Jonston의 「Operation World」를 지역별로 나누어 번역 정리하던 중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역본이 출간되어 버렸다. 2학기에 Study Group을 문화권별로 재조직하고 차례로 연구 발표할 예정이다.

c. 회원 연구발표 : 4月에 "Asia의 선교현황"(김 영수) 발표가 있었고, "Latin-America의 신학연구"(최 광석), "동남아 불교권 연구"(권 은순)은 5.17 조치로 발표되지 못했다. "중국권연구 I (대만)" (김 영수) 발표가 10월 중 있었다.

d. 초청강의 : 4월에 손 영준 선교사를 모시고 선교사의 준비에 관해 강의와 질의응답이 있었고, 5月에는 Dr. Pattyson(O. M. F 선교사)을 초청, "선교사의 메세지, 자격, 준비" 라는 경건화 설교와 필리핀 민도르섬의 선교활동을 스라이드로 보았으며, 좌담회도 가졌다. 전 호진 교수님께서도 "선교학의 제분야", "현대선교신학의 동향"에 관해 2회 강의해 주셨다.

e. 훈련 프로그램 : 80. 6. 16~20. 23~26. 2차에 걸쳐 M. V. Logos호 선상에서 개최한 "선교학교"에 참석, 세계선교에 관한 비전과 자료들을 얻고 교재를 나누었다. 그리고 80. 10. 4 O. M. F가 개최한 선교대회에 참가했다.

f. 기타활동 : 교단 총회 선교부에 학회 활동을 보고하고 학회활동 지원을 약속받음. 총신대 신학원을 비롯, 전국 주요 신학교의 선교신학회와의 교류, 81년도 총회선교 카렌다 편집, 자료키드 인쇄등의 활동이 있었다.

5. 활동 계획

벌써 2학기가 다 끝나간다. 이번 학기엔 자료목록(Bibliography) 작성을 완료하려 한다. 그리고 회원연구발표는 이 상룡 회원의 "공산권연구", 조청강의는 오 병세 교수님의 "1980 파타야 세계선교대회"와 "도시선교전략", 전 호진 교수님의 "'80 에딘버러 국제선교대회"의 정보제공이 각각 있을 예정이다.

방학중 활동으로는 주1회 모여 선교 Bible Study와 문화권별 연구발표를 계속할 예정이다. 그의 月1회 교단선교를 위한 기도모임도 계획하고 있다.

다음 학기 계획으로는 現在 하고 있는 활동 외에 기도훈련과 언어훈련이 집중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또 교단 교회들의 선교 참여를 위한 정책개발에 도움을 드리고자 선교 헌신예배 등의 초청에 구체적 자료들을 가지고 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학기 학술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학대학원 제1회 학술세미나를 선교신학회에서 받아 주관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내년 5월 중에 개최키로 계획한 이 일을 위해 방학중 준비세미나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우리 교단 선교와 한국교회 선교의 좌표를 설정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6. 선교 신학의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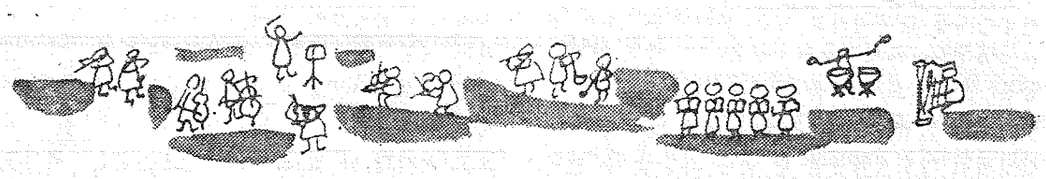
세계의 선교신학은 크게 양대산맥을 가지고 있다. W. C. C의 Ecumenical 선교신학과 이에 대항하는 복음주의 선교신학이라 할 것이다. 1910년 에딘버러 대회 이후 조직된 "국제선교회"(I. M. C 1921)가 1961년 제3회 W. C. C 총회(뉴델리) 때에 W. C. C와 합병하여 "선교 및 전도분과위원회"(C ME) 라는 W. C. C의 한 분과가 되었다. W. C. C의 Ecumenical 선교신학은 1952년 윌링겐 회의에서 나타난 소위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구체화하여 선교에 있어서 증거(전도)+봉사의 기능중 증거(전도)는 희생시키고 봉사만 강조하고 있다. 1975년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있었던 W. C. C 제5차 총회에서 "해방의 신학"이 저들의 선교신학을 지배하여 70년대의 신학은 "정치신학"으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한국신학대학을 중심한 W. C. C 가맹교회들이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에 순교적 열정을 가지는 것도 W. C. C의 선교신학에 근거하는 것이다.

복음주의 선교신학은 전통적으로 "구원의 신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의 강조점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적 사명(evangelical mandate)이다. 해방 신학의 발상지인 Latin-America의 경우 복음주의 선교의 실패가 구조악 제거를 목표하는 과격주의를 낳게 한 간접 원인이었음은 自省을 요하는 일 일것이다. 여기 개혁주의 선교신학을 定立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보게 된다.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Philosophical Apologetics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 西區 신학의 답습에서 missionary Apologetics에 근거한 동양적 접근이 개혁주의 선교신학의 한 과제이라 보아진다.

둘째는 W. C. C와 복음주의 선교신학에서 보는 양극단의 마찰을 개혁주의 신학은 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도적 사명과 함께 복음의 전 우주적 성격에 호소하는 문화적 사명(Cultural mandate)의 강조를 동시에 가지는 선교신학의 발전이 무엇보다 요청된다.

우리는 종교개혁 후 2세기에 걸친 비극을 결코 되풀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라"(exerting ourselves in the use of means for the obtaining of those things we pray for)고 한 윌리엄 케어리(Willam Carey)의 외침을 기억하며,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이다.



他神學大學의 학회활동을 둘러보고

□……학회보 편집기획에 있어 他神學大學의 학술·학회활동을 돌아보고자 한 것은 금번…□
□…창간호의 주요 관심사였다. 다음은 11월 10일부터 3일간 편집자와 학우회 섭외부…□
□…장과 함께 서울 경기지역의 神學大學을 탐방한 과정과 결과 몇가지 느낌을…□
□…간추려 본 것이다. 주로 학회활동면과 선교활동, 교육내용을 중점으로 하…□
□…여 그 순회 순서대로 소개해 본 것이다. 지면관계로 상세히 기록하지…□
□…못하는 부분도 적지 않겠으나 각 대학과의 비교면에서 어떠한 자…□
□…각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편집부〉……□

● 감리교 신학대학

냉천동 소재의 도회속의 공원을 처음 순으로 찾아 보았다. 캠퍼스는 아담한 고풍으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교내 건물은 마치 이삿짐처럼 전공별로 오목조목 떨어져 있었다.

학생처장을 만나 학회활동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았다. 신학원의 경우, 구약회·신약회·역사학회·실천신학회·독어 강독회를 두고 있었으나 현재는 구약회와 독어 강독회만 계속된다고 했다.

학부에선 수요일 오후 시간을 자유로이 배정하여 지도교수의 배려하에서 연구발표를 가진다고 한다.

이번에 M.Div 과정이 인가 되었고 일반대학 졸업생은 3년 과정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감리회에선 10년전 감리사 파송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현실문제로 인하여 이 제도가 환원, 복귀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추었다. 또한 이 대학의 특징은 신학활동 부문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전문간사를 근무시키고 있는 점이었다. 특히 선교 연구원, 교회교육연구원은 그 제도 강화는 물론, 사무재료 일반을 구비해 놓고 있었다. 편집자가 도서관 입구의 기도실 문을 열었을 때, 감신대의 기도제목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참고로 그 제목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오후기도회 ② 교회방문 헌신예배 ③ 성경대부 ④ 병원전도 ⑤ 구제사업 ⑥ 웨슬레 연구 및 세미나 ⑦ Membership Training ⑧ 철야기도 ⑨ 회지발간 ⑩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 ⑪ 타대학과의 교류 ⑫ 학교버화정리

●장로회 신학대학

워커힐을 배경으로 가을 산속 우거진 잡목 사이로 건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본관 복도를 들어서자 기획실을 비롯한 각 부서의 안정감 있는 행정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기획처장을 만나 환담한 후, 채플 룸, 도서관, 구내서점, 춘추사(신문사), 교수공관, 식당, 생활관을 둘러보았다.

특이한 사항은 본교 체제와 같은 것 외에 女性神學院과 教會女性指導者院이 설치되어져 있고, 지방신학 졸업생을 위해 牧會學院이 설치되어 이곳에선 목회 실질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월보를 간행한다고 한다. 학회활동면에선 신학원 공히 「신학연구 모임」이란 명칭하에 자치제로 행한다는 것이다. 선교사 파송 연구회는 크게 진전은 없으나 인도네시아에 2명을 파송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다고 했다. 정기간행물로서는 격월간의 춘추학보(신문)가 있고 여기엔 격주로 모이는 「교수 순환 공개강좌」의 발표논문이 수록되는 데 최근엔 '사실과 허위'란 제목으로 계재한 바 있다. 여기 발표논문은 책자로 엮어서 장신대 문고로 간행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교수논문집 「教會와 神學」을 1년에 한 차례씩 발행한다.

● 총신대학

해질무렵 우리는 사당동 총신대에 들렀다. 옛 운동장은 죄다 잔디밭과 화단으로 가꾸었고 운동장은 산기슭에 새로이 닦고 있었다. 사무처장을 찾아 학교 소개를 받았다. 학부와 신학원은 완전히 분리되어졌고, 이제 개강한 지 1주일 남짓했다. 학회는 몇개 부서로 조직은 되어 있으나 모든 활동은 중지되어져 있는 처지였다.

신학지남사와 출판부와 도서관에 들러 간행물을 얻게 되었다.

● 서울 신학대학

우리가 서울 神大에 도착했을 땐 전국 신학대학 교무처장 회의가 모이고 있었고, 기념관에선 채플이 시작되고 있었다. 경건회에 함께 참석한 후 학생처장을 뵙고 학년 대표들을 만나게 되었다. 大學院 과정은 M.A(20名)와 M.Div(30名)로, M.A에선 神學研究 및 教會問題를 자치제로 토론하는 수요모임이 있고, M.Div에선 학년별 월례세미나가 매월 마지막 금요일(P.M. 3:00)에 모인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요내용은 「성령세례」와 Christian의 결혼관이었단다. 이들은 졸업 후에도 계속하여 神學研究會 모임을 갖고 각자가 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회를 연다고 한다.

서울神大의 특이한 점은 외국인 학생이 來韓, 공부하고 있었는데, 인도 학생 S와 잠깐 이야기를 나눈 바 학부에 일본학생(1), 중국학생(1), M.A에 인도학생(2), M.Div에 일본 여학생(1)이 공부한다는 것이다. 선교면에선 아직 미개척 분야일 뿐 이제 재학생 중에서 중공과 캐나다 선교를 위해 개인적으로(2名)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들의 주요 선교지는 인도로 생각하고 있다. 참고로 대학부의 3개 써클 내역을 옮겨 놓는다.

1. 종교부 : ① 성화전도회—병실위로 ② 두닢선교회—금식으로 학우돕기 ③ 임마누엘 기도회—매주 금요일기도실 ④ 어린이 선교회—주교교사 양성 및 지역전도 ⑤ 기드온선교회—군종장교후보생 30名의 경기도내 승공강연회 ⑥ 사중복음전도회—성결교교리연구 윤락여성 및 소년원전도 ⑦ 아파트 선교회—O.M.S 와의 협력하에 월요일 P.M 2:00 ⑧ 음악선교회—Gospel Song 전국순회 공연실적〈2. 문예부〈연극회 연례공연〉 3. 여학생부〈꽃꽂이회 행사시 발표〉

그런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기도실의 아늑한 분위기와 평안한 조명장치이다. 이들이 웨슬레神學을 수용하고 있으나 기도의 열정은 본받을만한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크게 놀란 것은 도서관 운영과 음악도서관이 있다는 점이었다. 대학원생들에겐 서고 출입증을 발급하여 자유 열람케하며 이들에겐 서고실 내에 개인별 지정책상이 마련되어 있었다. 자료실엔 외국인 초청강사의 강의와 설교, 녹음테이프가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시청각 자료 및 어학실습실의 기재도 완비되어 있어 하나하나 촬영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다. 또한 음악도서관엔 40여석의 청음장치가 완비되어 있고, 각종 테이프와 종교음악 음반이 구비되어 있었다. 장서 3만2천여권을 확보한 서울神大는 대주 신간서적이 소개되고 있으며, 앞으로 연신원과도 교류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신대학

수유리 정유소에 내렸을 땐 소낙비가 내렸다. 사무과장과 인사한 후 박 봉랑 대학원장과 환담하게 되었다. 이 날(12일)부터 강의가 시작된 韓神은 Campus 전체가 숙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학부(200名), M.A(3名), M.Div(14名)으로 대학원은 2년간 공부하고 있었으며 일반대학 졸업생은 3년제로 한단다. 준목고사 제도가 설치되어 학부졸업자로서 5년내에 12과목을 합격해야 완전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원 졸업자는 모두 4과목만 치루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금번에 80名(M.Div) 인

가가 났다고 한다. 원우회의 학술활동은 이제까지 정비해야 할 단계였고, 임원진을 중심으로 매 학기당 校外教授 초빙의 연구발표와 디스커션을 갖는다고 했다. 해외유학 지로는 캐나다, 스위스 독일로 선정되어 있고, 기장 총회에선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이다. 현재 독일(3名), 카나다(1名), 미국(1名) 등지에서 활약하고 있단다.

도서관은 만 팔천여권의 장서를 구비하여 그 이용은 완전 폐가식으로 하고 있었으며, 산하 교육기관으론 병설 한신국교(13개학급)와 고등공민학교(6개학급)가 있어 일부 교생실습처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날 박원장의 강조는 韓神에서도 K.Barth를 비판하고 있으며 금년 1학기부터 Calvinism 神學을 4학년에 필수(2학점)로 두어 강의하였고 보수주의 신학에 대해 찬탄을 마지 않았다. 그래서 칼빈에 대한 생애와 신학을 필히 Report 과제로 낸다는 것이다.

정기 간행물로선「한신학보」「세계와 선교」(격월) 교수 논문집「神學研究」(연간)와 教授研究論集이 문고로 간행되고 있다. 大學部에선 조직만 해 놓고 아직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없는 써클이 10여개 있었다.(신약학회, 구약학회, 조직신학회, 실천신학회, 교회사학회, 사회과학연구회, 극예술연구회, 기독교교육학회, 독일신학연구회, 검도부, 성가대, 토우회)

탐방을 마치고

신학노선이 다른 神學校 순회는 그렇게 큰 임무를 띤 것도 아니었는데, 담담하고 긴장되기도 했다. 보는 것마다 高神과 기계적으로 비교가 되기도 했고, Campus內 행정질서와 연구소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선 깨닫는 것이 많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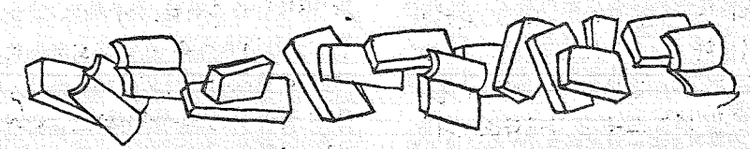
특히 감신의 간사제도, 장신의 기획실, 서울神大의 음악도서관과 시청각기재의 現代式 연구시설은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학회면에선 본교 연구과만큼 구체적으로 조직 실시되는 학교는 한 곳도 없었거니와 학구면에서도 진정되지 못한 분위기를 他校에서 접해 보았었다.

허나 他校에서 도서관을 비롯하여 사무처나 교수실등 들리는 곳마다 그들이 얼마나 친절 하게 대해주는지 그들의 인간미에 한껏 끌리기도 했다.

이번 나들이에서 느낀 공통점은 보수신학의 정통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타처에선 극구 시인하였고, 韓神大의 어느 교수는 "國內神學은 정통과 자유, 두 학교만 존속할 것입니다."라고 웃음짓기도 했다. 실로 校名이 달라진 모든 神大의 새로운 준비가 요청되는 바이다.

이제야말로 高神은 더욱 학회활동에 박차를 가해 他神學大를 선도할 만큼 神學研究에 앞장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尹 泰 植〉



희 망 의 대 화

—고신의 미래상을 알아본다—

● 대담 : 이 근삼 학 장
이 상욱 편집장

최근 학교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을 시사하는 성과들이 있었다. 이에 온 고신인의 지대한 관심과 화제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차제에 공식적인 견해를 알아보므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소문의 난무와 곡해를 해소할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80. 11. 23)

편집장 : 바쁘신데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校名 변경과 醫豫科 신설에 있어서의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학 장 : 우리 총회에서 1979년 9월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하여 연구추진키로 하고, 이사회 15명과 10개 노회대표 1인씩 총 25인 합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연구 추진중 의과대학의 별도 설립은 극히 어려움으로 고려신학대학에 의예과를 증과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여 문교부에 신청서를 내게 되었읍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3월에 의예과를 비롯해서 선교학과, 보육학과, 영어교육학과의 증과신청을 문교부에 제출하였읍니다. 그런데, 의예과는 1978년도에 신청한 바 있었고, 정부당국에서 모든 여건들을 조사한 결과 가능성이 인정되어 허락할 의사를 가졌으나 신학대학으로서는 어려우니 교명을 高神大學으로 바꾸고 그 결의사항이 담긴 理事會 회의록을 요청하므로 당시 이사장이 海外旅行中이었고 심사시한이 촉박하여 학장의견서라도 된다 하여 학장은 만일 위에 신청한 학과들이 증과 인가되는 경우에는 교명이 高神大學으로 바꾸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서를 문교당국에 제출하게 되었지요. 그래서인지 얼마 안되어 문교부의 대학정원 발표시에 校名變更을 표함해서 의예과 증과 신설이 인가된 것입니다. 이 일이 이사회, 총회 등 절차를 밟지 못한 관계로 총회 석상에서 학장이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므로 선히 받아드려졌고, 이사회에서도 定款에 高麗神學大學을 高神大學으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편집장 : 일부의 우려이겠읍니다만 神學校의 전통과 순수성이 많이 흐려지지 않나 하는 것과 世俗化문제(윤리적인 면)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학장 : 신학대학 안에 기독교 교육학과, 종교음악과가 있으므로 倫理問題가 염려시된다는 말이 있어 왔읍니다. 거기에다 의예과 학생을 받아드리면 더욱 세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많읍니다. 그래서 입학요강에 명시한 대로 洗禮教人을 받는다고 했읍니다. 환경이 바뀌져도 고려신학대학의 傳統을 그대로 살리고자 하며 이 일에 재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

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장 : 감사합니다. 학교 내의 경건분위기 유지에 대한 특별한 구상이 있는지……

학 장 : 앞으로 敬虔會를 합동으로 모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요. 神學大學院生들이 경건의 주도권을 쥐고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종교음악과 학생들이 적극 협조해서 신학대학의 분위기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의과생들도 의료선교사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지도하려고 함으로, 우리 大學 全體가 改革信仰과 선교정신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편집장 : 영도 東三洞에 새로운 캠퍼스 부지를 마련한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확충 및 캠퍼스 배치와 이에 따르는 財源開發이 상당하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학 장 : 영도에 垈地 71,000餘坪을 구입하여 登記移轉를 마쳤고, 문교당국에 증자보고를 완료했읍니다. 그런데 용도변경과 학교부지로 공고되는 일과, 그리고 건설을 위한 정지작업, 진입로 확장에 많은 시일이 요하므로 1981년 후반기에 가야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재원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방대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읍니다.

편집장 : 11월 13일자 國內 일간지를 통해서 저희 고신대를 포함해서 전국 7개 신학대학의 신학대학원 인가가 문교당국으로부터 발표되었읍니다. 여에 대한 배경 설명과 신학대학원의 學內 지위 및 役割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학 장 : 종래의 본과, 또는 硏究科(seminary)는 고려신학교 개교당시부터 있었고, 고려신학교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따라서 실력있는 교역자 양성에 우리들의 全力을 기우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교법에는 이 과정이 인정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온 것인데 이제야 이 과정을 인정할 단계에 도달하여, 이것을 열망하는 신학대학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번에 인가가 난 것입니다. 1981년 3월부터 고신대학의 신학대학원으로 學士학위를 가진사람들이 입학하여 碩士學位(M.Div)를 위해서 공부하는 정규 특수대학원입니다.

편집장 : 정규 신학대학원 인가를 계기로 대학원식의 강의 스타일이 도입돼야 하고 질적 수준향상을 기해야 겠는데, 이에 따르는 커리큐럼의 조정과 교육내용의 충실화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 장 :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하여는 大學院委員會에서 조정,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읍니다.

편집장 : 그리고 연수과와 전수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있는지?

학 장 : 연수과, 전수과 신입생은 新學年度부터는 모집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은 종전대로 계속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편집장 : 마지막으로 새해에 교수진 보강 계획이 있읍니까?

학 장 : 대학과 대학원에 共히 교수진 보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나 어려움이 따르고 있읍니다. 위해서 기도로 협력할 것을 부탁합니다.

편집장 :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유익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基督敎敎育의 理念과 展望

대학부강사 姜 勇 元

한 사람의 覺醒된 平信徒에 의해서 自發的으로 시작된 主日學校運動은 基督敎敎育 歷史에 새로운 章을 펼쳐놓았다. Robert Raikes(1736~1811)가 1780년에 始作한 主日學校運動은 올해로서 20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時點에서 筆者는 基督敎敎育의 基本理念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展望을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基督敎敎育은 人間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被造物이는 사실과 하나님은 모든 眞理와 實在의 근원이라는 사실에 그 基礎를 둔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人間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로 달음질 칠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通해 救援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人間의 참된 回復의 역사를 始作하셨다. 그러므로 基督敎敎育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人間의 救援역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를 닮은(christlikeness) 인격을 형성하며, 啓示의 빛 아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모든 領域에서 維持하면서 살도록 돕는 信仰共同體(敎會, 家庭, 基督敎 學校등)의 努力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基督敎 敎育의 使命과 目的을 檢討하기 爲해서는 聖經이 말하는 人間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성경은 人間을 하나님 앞에서 罪人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항상 나쁜 일만을 한다는 意味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干涉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점점 惡해 질 수 밖에 없는 存在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기에 人間은 "옛 사람" 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狀態에서 根本的으로 變化하지 않으면 안된다. 人間의 이 根本的인 變化를 聖經은 "重生" "거듭남", "회심" 등으로 表現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救主로 받아들이며, 生의 根據와 모든 價値의 표준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김을 의미한다. 또한 聖經은 거듭난 자의 人格은 점차 聖化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거듭남"이 靈的 誕生이라면, 聖化는 靈的 成長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관심해야 할 일은 그가 얼마나 오래동안 基督敎人이 었는가의 問題가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成長하였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人間回復을 目的하는 基督敎敎育의 目的에는 근본적으로 두가지가 포함되어야 하는 바, 하나는 회심의 차원이며 또 하나는 성화의 차원인 것이다.

Gaebelein은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이 두가지 次元에서 말한다. 즉 기독교교육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人格的으로 委託하도록 引導하는 것이요, 또한 同時에 그리스도께 委託한 자들을 養育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 두가지 面을 代表하는 말로 傳道(evangelism)라는 말과 養育(nurture)이라는 말을 使用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關係回復을 위한 회심과 성화의 基本的인 이 두 요소를 記憶하면서 基督敎敎育을 養育의 次元으로만 생각지 말고, 敎育을 傳道와 分離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幼年部에서 壯年部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重生받지 못한 心靈이 있는 법이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傳道가 竝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重生되지 않은 이에게 靈的成熟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傳道가 먼저 이루어지고, 養育이 뒤따른다고 말 할 수 있으나 特히 어린이에게 있어서의 회심되기 前의 基督敎養育은 그가 福音을 받아들일 수 있는 準備와 바탕을 갖추게 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認定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더 언급할 點은 人間의 聖化는 곧 그가 關係하는 모든 事物과 人間, 그리고 그가 접하는 모든 環境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變化라는 事實이다. 그러기에 基督敎敎育은 全 生涯의 過程을 포괄하며 人間이 삶을 營爲하는데 관계한다는 點이다. 信仰敎育을 根幹으로 하는 基督敎敎育은, 人間의 모든 領域속에서 하나님의 榮光을 드러내는 삶을 强調해야 한다. 特히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에 對한 바른 槪念을 定立하고, 宣敎의 使命을 새롭게 하며, 나 자신에게 주어진 才能을 개발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文化的 使命의 完遂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볼때 基督敎敎育이 다루어야 할 範圍가 얼마나 큰 가를 새삼 바라보게 되며, 오늘까지 基督敎育이 스스로 矮小化의 길을 걸어왔

음을 反省하게 된다. 特히 하나님의 眞理를 소유하고 있는 信者는 마땅히 學問의 領域에서도 바른 학문을 세우는데 努力하여야 한다. 特히 一般 教育學에서도 잘못된 理性과 哲學을 基礎한 教育論의 追求가 아니라 참된 眞理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中心한 바른 教育學이 硏究되어야 한다. 基督教教育學은 基督教 哲學이나, 혹은 辨證學的 次元에서 教育 현상을 분석, 비판할 수 있으며, 一般 教育學이 이루어 놓는 科學的 探究의 結果를 건설적으로 利用하고 對話해 나가므로 그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기독교교육이 지향해야 할 몇가지 점을 提示하면서 未來를 展望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는 信仰共同體의 教育的 自覺이 要請된다. 基督教教育은 基督教의 歷史 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며, 구약의 이스라엘 共同體는 그들의 宗教的 遺産을 後孫에게 傳承시키는 일을 教育을 通해 成就해 왔다. 申命記書에 자주 반복되는 教育의 명령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되게 한 窮極的要因이 바로 教育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의 教會教育의 問題의 소재는 다른 곳에 있다기 보다는 信仰共同體와 教育의 有機的 關係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教育이 다른 非本質的 요인에 의해 주변으로 밀려나게 될 때 教會의 教會되는 일은 암담하다고 할 것이다. 教會의 更新은 教育의 革新이 없이는 不可能하다는 事實을 기억해야 한다. 同時에 基督教教育은 모든 信仰共同體에 의해 이루어져 나가야 하므로, 새로운 教育現場을 發見하는 일이 必要하다. 즉 教會에만 집중된 基督教教育의 폭을 넓혀 家庭이나 基督教學交 또는 平信徒 教育機關, 나아가서는 基督教 社會教育의 次元에 이르기까지 넓어져야 하기라고 본다.

둘째로,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개발이 必要하다. 教育課程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前提作業이 必要하다. 教育目的의 정립, 學習過程의 心理的 고찰, 內容 選定을 爲한 神學的 고찰, 基督教教育이 實現되는 Context의 고려, 교육과정 조직의 原理 정립 등의 作業이 必要하다. 筆者의 見解로는 郊果的인 教育課程 개발을 위해서는 基督教教育學 전문가와 神學者, 教育學者, 心理學者, 執筆家, 美術이나 音樂 전문가 등이 총 망라되어 이 일에 參與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로, 基督教教育은 모든 연령층에 대한 關心과 理解를 必要로 한다. 最近에 平生教育(life-long education)에 대한 關心이 高潮되고 있는데 基督教教育도 兒童教育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그 관심대상자의 폭을 넓힐 必要가 있다. 우리는 "어린이가 내일 모레의 希望이라면, 青少年은 來日의 希望이며, 壯年은 오늘의 希望이다. 어린이를 잃으면 教會는 두 世代안에, 青少年을 잃으면 한 世代안에, 壯年을 잃으면 教會는 바로 이 世代에 망할 것이다" 라는 말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教育은 피교육자에 對한 理解를 基礎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연령층의 人間에 對한 바른 이해와 그들의 問題意識을 올바로 把握하지 못할 때, 그 教育은 Henri Nouwen이 말한 바와 같이 暴力的 教育으로 轉落될 수 밖에 없다. 이해를 기초하지 않는 教育은 그저 지도자가 자기 타입으로 學生들을 만들려고 하는 强要가 될 뿐이며, 그저 盲從하는 유약한 人間을 만들어 낼 뿐이다.

네째로 教育構造의 改革이다. 오늘날 實施되고 있는 教育構造는 주로 일방통행적인 전달(one-way communication)의 구조이다. 教育者는 말하고 學生은 그저 듣는 형태를 取하고 있다. 이런 一方通行的인 構造속에서는 參與와 關心이 없는 무기력한 結果를 낳기가 쉽다. 教師中心, 注入式, 下向式, 知識傳達 爲主를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信仰教育이란 모름지기 告白과 干證의 次元에서 具體的인 삶 속에서 實行되는 生活體驗의 共有에서 이루어 진다는 事實을 기억해야 한다. Philip H. Phenix는 산 信仰의 教育은 所望을 지닌 共同體 속에서 일어남을 강조한다. Lawrence O. Richards는 申6:6—7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성경은 생활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는 리얼리티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다 聖經의 眞理는 그 眞理가 자기들의 人格 속에 녹아져 있고 生活體驗을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어린이들에게 傳達되어야 한다. 聖經教育을 爲한 決定的인 現場은 教室이 아니라 집안이다. 산책이나, 문 앞에 함께 앉는 것, 따뜻한 침대 속의 안락함, 그리고 새날을 맞아 일어나는 기쁨 등등이 教育의 現場이다. 성경의 진리가 全人으로서의 우리에게 意味를 갖는 것은 生活 그 自體인 것이다"

끝으로, 基督教教育의 專門化가 시급하다. 基督教教育의 專門化를 위해서는 專門的인 教育硏究家들이 양성되어야 하고, 教育指導者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基督教教育에 관한 學問的 硏究기관과, 教會教育 전문기관들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또한 教會는 교육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위치를 부여해 주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基督教教育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基督教 教育의 독자적인 學問的 정지작업이 必要하다. 이러한 벅찬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犧牲을 감수할 줄 아는 Vision있는 自願者들이 많이 나와야 할줄로 안다.

학우회 사업계획

80. 10~81. 6

—편 집 실—

1. 전도부

1) 부흥수련회 : 81년도 새학기를 기하여 교외의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2) 개척교회 설립을 위한 전도계획 : 매주 목요일 오후에 학년별 윤번제로 실시하며 장소와 구역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3) 부산, 동부산 노회 전도부원과의 간담회 : 80년 11월 중순에 "부산복음화를 위한 고신인의 책임"이란 주제로 모임을 갖는다. 여기에서 부산복음화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함을 목표로 한다.

4) 전도강연회 : 81년도 학술제 중에 "총동원주일의 현실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5) 전도포스타 및 표어현상 모집 : 81년 3월 중에 실시

6) 등산전도대회 : 제1차는 80년 10,30. 제2차는 81년 4월 중에 갖는다.

2. 학술부

학술부의 금년 목표는 "학회활동 정상화"에 두고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1) 자율적 참석 및 고무적인 방법을 위한 대책

ㄱ. 좌담회(원장님, 교수님, 임원, 학회장)를 10월 5째주에 실시

ㄴ. 학회장회의를 매월 첫주에 실시하며 주 1회의 보고서 제출

ㄷ. 학회일지 작성

2) 매월 첫주 학회별 세미나 개최(외부강사 초청)

3) 학술강연회 : 4월 중에 실시

2. 음악부

1) 시편으로 작사한 국내 작곡가 7인 발표회

2) 새 성가 보급 : 계속사업

3) 경건회시 성가 특순(수시로)

4) 복음성가집 제공

5) 국내 성가가수 초청공연

4. 생활부

1) 학우의 경·조(慶 吊)와 우환에 협력을 도모한다.

2) 교회 봉사처와 적임자를 주선하는 편리를 제공한다.

3) 학원 내의 경건 분위기를 조성한다.

5. 체육부

1) 체육기구 구입(소프트볼, 축구, 배구)

2) 11월 중, 각 학회대항 소프트볼 대회

3) 신입생 환영 체육대회(81년 3월)

4) 건강을 위한 세미나 개최(81년 4월)

5) 축구대회(81년 5월, 기존행사)

6) 소프트볼 대회(81년 6월)

6. 섭외부

1) 신입생 환영회(81년 3월)

2) 졸업생 환송회(80년 12월)

3) 교수와의 간담회(각 기말, 2회)

4) 타 신학대학 및 해외 자매학교와의 교류

5) 홍보활동 및 행사 사진첩 제공

—학우회 임부장 명단—

회 장 : 박 은 조(2)
부회장 : 김 대 룡(1)
총 무 : 이 대 용(2)
서 기 : 고 명 길(2) 김 종 국(1)
회 계 : 서 보 명(2) 박 광 실(1)
전도부 : 오 병 욱(2) 박 은 생(1)
학술부 : 송 제 근(2)
음악부 : 김 종 권(2) 박 기 용(1)
생활부 : 박 영 준(2) 이 동 수(1)
체육부 : 김 재 곤(2) 곽 용 동(1)
섭외부 : 김 영 수(2) 권 은 순(1)

고 신 저 널

☆ 학우대표—교수 간담회

지난 10월 30일 저녁, 온천장 菜음식점에서 學友代表들(학우회 임부장, 학회대표)과 연구과 전임인 오 병세, 박 성복, 이 보민 세분 교수님들 사이에 懇談會가 열렸다.

등반전도대회가 무사히 끝난 뒤 마련된 이 모임은 신임 임부장들의 인사를 겸해서 가져졌는데 學友會 活動方向을 비롯한 學會活動의 活性化, 會報發刊과 최근 학교의 進路등을 중심으로 진지하고 광범위한 對話를 교환했다,

☆ 3학년 졸업여행·종합고사 실시

지난 10월 19일 3년 총결산행사의 하나로 2박 3일간 濟州島로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그리고, 7년간 神學研讀의 총정리를 의미하는 졸업종합고사가 11월 26일~12월 3일까지 전과목에 걸쳐서 치르졌다. 졸업후 복음전선에서의 건승을 기원한다.

☆ 1, 2학년 등산전도대회—東萊山城에서

滿山紅葉의 가을 山野에 고신인의 기혼과 복음의 의지가 타올랐다. 지난 10월 30일 學友會 生活部 주관으로 등산전도대회가 70여명의 학우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 날 梵魚寺—北門—東門의 코스로 山行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사랑합시다"라고 새긴 플라스틱제 표찰을 요소에 부착하기도 하면서 자연보호를 통한 전도에 힘썼다. 동문에서 합류, 점심을 마친 뒤 1, 2학년 대항 풋·베이스볼 시합, 보물찾기 등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었다.

☆ 연구과 神學大學院으로 인가되다.

지난 11월 13일 文敎部는 본 대학을 포함한 전국 7개 신학대학이 신청한 신학대학원 認可를 공식 발표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81학년도부터 시행되며, 모집정원 80명에 입학자격은 學士학위 소지자에 한하며 교육년한은 전체 5학기가 될 공산이 크고, 이수자에게는 神學碩士(M. Div)가 수여된다고 한다. 그런데 본 대학은 개교때부터 이에 해당하는 研究科(일명 本科, Seminary) 과정을 두어 많은 교회지도자를 배출해 왔었는데 이번에 特殊大學院으로 定規化되게 된 것이다.

☆ 校舍 증축공사 활발히 건축중

대학부 의예과 증과등으로 교사증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현 생활관주위 공지 500평에 증축하여 이것을 생활관과 하나의 건물이 되게 하는 구상으로 지난 11월 11일 기공예배를 드리고 내년 2월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척되고 있다. 연건평 1,400평의 7층 새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대부분 대학부 강의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단층 구교사는 철거하게 되며 본관건물은 신학대학원, 행정처부, 생활관등으로 각각 사용될 것이라고 한 관계자가 말했다.

☆ 학회대항 Soft-ball대회

지난 11월 2일부터 2주일간 예정으로 암남동산에서는 老壯들이 벌이는 백구의 향연이 펼쳐졌다.

학우회 체육부가 주관하고 6개 학회가 참가, 점심시간과 방과후를 이용하여 시합을 진행하여서 우승을 목표로 자웅을 겨루었다. 신학 연찬에 못지 않는 열기와 학부생들의 존경과 선망의 적이 된 가운데 시합분위기는 열릴 때마다 한층 고조되었다.

(敎) (授) (動) (靜)

- **오 병세** : 6월 16일~6월 27일까지 泰國 파타야에서 열린 "世界宣敎와 傳道協議會"에 참가, 歸路에 대만에 들려 3주간 改革宗長老會 목사연수회와 학생집회(S. F. C) 강사로 수고하심.
- **이 보민** : 11월 19일 대학부 추수감사 축전시 「거룩교육리와 하나님의 法」이란 제목으로 학술강연을 하심.
- **박 성복** : 11월 20일~11월 8일 새마을 연수교육차 수원을 다녀 오심.
- **전 호진** : 10월 24일~11월 1일 영국 Edinburg에서 열로 1980년 세계선교대회에 다녀 오심.

(학) (우) (동) (정)

·1학년

전체 : 학금전도대회 및 기도회(송도 일대, 11월 6일)

정 돈화 : 81년 1월 6일 결혼 예정(순천 제일교회)

장 갑덕 : 11월 21일 결혼(동평 제일교회)

·2학년

전체 :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학금기도회 가질.

유 의수 : 2년전 남산교회(동래구 남산동 소재)를 개척, 각고 끝에 아담한 성전을 입당하고 부흥회를 가짐(강사 육군대학 군목 김 홍태목사).

조 철 : 11월 22일 결혼(충무등 교회)

김 정호 : 12월 16일 결혼 예정

학우회 임부장회 개최 : 81년 1월 초

G. F 휘체돔 저/박 근원 역

하나님의 선교

대한 기독교출판사刊/202면/1,800원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이 방면에 관한 논문을 구상중이던 1980년 초였다. 전 호진교수로부터 영역본을 복사하여 호기심을 갖고 탐독하였던 것이다. 이 책은 1957년에 독일어로 쓰여졌고, 1965년에 영역되었다. 지난 7월에 한국신학대학의 박 근원교수가 한역판을 내었으니 출곧 잡아 20년 이상이 늦은 감이 있다.

이 책의 저자인 G. Vicedom은 독일인으로 Bavaria의 Neuendettelsay 신학대학 신약학 교수요, 친히 윌링겐 대회를 전후해서 이 개념문제의 토의에 참여하였다. 또 이 개념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 간략한 입문서를 제시하게 된 것이다 (서문) 이 책은, 따라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제목이 시사하는 개념규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는 성서신학자로 이 선교분야에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려고 애씀을 우리는 역력히 읽을 수 있다. 그 내용은 크게, 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개념고찰, ②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主되심, ③ '보내심', ④ 선교의 목표, ⑤ 구원의 공동체의 전5장으로 되어 있다. 이하에선 그 배경과 개념정의, 영향을 중심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Missio Dei는 현대에 와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했다. 어느 한 신학자의 산물이기 보다는 많은 사람의 토의를 거친 수확이다. 그들은 말하길 : "이 신학적 개념은 20C 세계교회운동의 과정에서 발굴된 그리스도교의 진리을 표현하는 대표적 개념이요…… 금세기 중반 에큐메니칼운동의 노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신학적 다이어먼드"라고 한다. 정확히 말해 이 Missio Dei란 1952년 IMC 5차대회인 윌링겐대회이후 WCC계 세계선교운동에 지대한 공을 끼쳐온 신학적 개념이다. 同대회는 「교회의 세계선교」라는 주제하에 "One church" 와 "One mission"에 관해 많은 토의를 했다. 또 1968년 웁살라대회는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요 인간의 것이 아니다"(Mission is God's not man's)라는 입장에 선 것 같다. 본인의 견해론, 한국교회에서 1960년대에 가열되어 70년대까지 휩쓸었던 토착화논쟁은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이라 보아진다.

다음으로 그러면 Missio Dei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며, 교회가 선교의 출발점, 목표,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강조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모든 선교사업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선언이다. Vicedom(저자)에 의하면 : 선교는 1)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성부) 2) 하나님을 통한 선교을(성자) 3)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이요 그의 보내심(성령)을 함축(implication)한다고 한다.

다음 중요한 개념은 '이 세상(in this world)이라는 닫어이다. 본서에 대해 한신대의 주 재용 교수가 다는과 같이 논평한 것을 주의깊게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 관심이 되는 것은 이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이다. 그것이 정치적이든,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것이든간에 그 모든 일에 관심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세계가 곧 하나님의 세계요,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는다"(sendung)는 개념이요,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남을 위한 존재',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그 영향을 살펴보자. 이 Missio Dei를 선교신학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나 반대하는 입장에서나 그 개념이해는 피상적인데 그쳐 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하겠다. 주 재용 교수는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이 개념을 사용하여 교단의 선교신학으로 채택하기도 했다"고 언급하였듯이, 이는 기장이 "한국교회의 참여전위대"로 걸어왔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진다. 이는 한신대의 신학교육 이념에도 큰 몫을 차지하여 왔다. 기독교 관육과 관계하여 볼 때, 이 Missio Dei는 페터 러셀이나 프레이르 등에 있어 교육신학(theology of Education)의 구조가 되어 왔다. 전자는 교육을 선교라는 Context에서 풀이했고, 후자는 '의식화 교육과 해방의 교육'을 외쳤고 프락시스를 강조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이 Missio Dei는 신정통신학에선, '신학적 경험과 세속적 경험' 사이에 공백을 메꾸지 못하는 그 한계점에서 출발하여 70년대에 세속화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본 바대로 Missio Dei는 생각보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저자는 Van Ruler라는 화란신학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개념은 "신학내부에서의 혁명"이라고 술회하고 있다(p. 94) 물론 John Taylor 같은 이는 "우리가 성경에 더 진실하려면 Missio Dei가 아니라 Missio-ones Dei를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니 W. C. C.는 이는 봉사(διακονια)까지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이해하길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모든 것을 지정하며 WCC 전도분과의 유명한 기관지인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는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으로 변경해 버렸다.

이는 우리의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왜 외지선교사 파송을 거부하고 Moratorium을 실시하는가? 그 배경에는 19C 선교의 취약점을 잘 보았기 때문이요, 경건주의가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개인주의적 편협성에 묶어버렸다는 비판의식에서 비롯된 것인줄 안다. 이에 중요한 핵심은 대륙(영·독·화)에서 프락시스를 무시한 이론중심의 사변적인 삼위일체론의 지나친 발달에서 나온 것인줄 생각된다. 또한 성·속(Sacred and Secluar)의 대화를 시도하고(니버), 사도직의 신학(호켄다이크)을 강조하며, 「하나님—교회—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세상—교회의 선교적 구조를 형성한데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Missio Dei는 선교보다는 교회의 사명에 치중하고 교회의 본질보다 사명을 강조하는 기능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저자는 WCC 선교신학이 극단적 Social Gospel 일변도로 나감을 우려하였고, 바이엘하우스를 비롯한 복음주의로 전향했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오늘날의 정치신학, 해방의 신학, 사회적 관심의 발달은 저자가 의도한 것에서 훨씬 지나친 것이라는 점이다. 동시에 그 책임을 저자가 전적 회피할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 개혁주의 선교신학은 개혁주의 문화건설과 아울러 적극적 선교사업(missions)을 힘쓸뿐더러, 이들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야하리라.

〈최 광석 연구·2〉

〈4 페이지에서 계속〉

4. 임원조직과 회원 명단

지난 10월 정기총회에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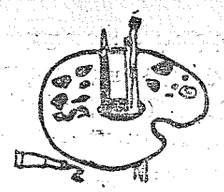
학회장 : 이윤재(2)　　총 무 : 차정환(연2)
서 무 : 김경영(연1)
• 3학년 : 배 광호, 박 찬용, 이 성구, 강 도순
• 2학년 : 조 명태, 조 정용, 윤 춘식, 김 원동, 서 보명, 진 영철
• 1학년 : 정 돈화, 손 주식, 이 재천, 이 기용, 김 갑수, 장 갑덕

〈7 페이지에서 계속〉

■ 회원 명단

• 지도교수 : 박 종칠
학 회 장 : 이 상열
총　　무 : 변 종길
2 학 년 : 강 영민, 고 명길, 김 문규, 김 정호, 박 성 규, 박 은조, 오 병욱
1 학 년 : 김 영식, 신 치용, 정 찬수, 이 대식, 이 수원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



教授 李 保 民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은 正反對의 일인 것 같다. 가르치는 자는 지식을 주입시키는 일을 하고, 배우는 자는 그 주입되는 지식을 받아드리는 일을 하는 자로 보여진다. 가르치는 자는 높은 자리(교단)에서 여러가지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야 한다면 배우는 자는 낮은 곳에서 별 권위의식도 없이 조용히 있어야 하는 자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점들을 들어서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의 正反對性을 보여 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모든 정반대성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사실일까? 물론 사실일 수가 있겠지…… 그러나 그 정반대성들이 과연 배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의 본질적인 성격을 파헤치고 있는 것일까?

◁★▷

나는 화란어를 그렇게 굉장한 언어로 생각해 본적이 없다. 우선 그 발음부터 별로 점잖은(?) 것으로 들리지도 못하고 매력이 없다(적어도 나에게는). 고작해서 전 세계에 약 2,000萬 정도의 사람이 그 말을 사용하는데 그 중요성이 뭐 대단하겠는가? 학문적으로, 문학, 예술적으로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언어로 생각될 필요가 없는 보통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솔직한 느낌이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이 언어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이다. 즉, 다른 언어에서 별로 찾아 볼 수 없는 한가지가 있는데(물론 불어는 약간 예외라고 하겠으나), 그것은 화란어에서의 "배우다"와 "가르치다"의 표현이 같은 한가지의 단어(leren)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하나의 단어가 곧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을 일맥 상통한 것으로 암시해 준다는 사실은 퍽 마음에 든다.

정녕 배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은 별개의 것, 또는 정반대의 것일 수 없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 또는 직책 때문에 가르치는 일에 몰두해야 할 때가 많은 것 같다. 가르치는 자의 자세에만 관심을 쏟고져하는 때가 많지 않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의 배움 위에 기초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배운 후에 가르친다는 말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우리의 매일의 가르침은 우리의 매일의 배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겠다. 특별히 우리의 주님에게서 배우는 배움에 근거되어 있어야 하겠고, 우리의 스승, 동료들에서 배우는 배움과 관련이 있어야 겠다.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배움을 받는 자에게서도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배움을 필요로하는 자를 배워서 알지 못할 때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우리 주님도 우리를 배워서 알고져 이 땅에 오셨는데……

〈회　고〉
편집위원
윤 춘 식
정 돈 화
정 찬 수
학 우 회 장

발행인 : 박　은　조
편집인 : 이　상　욱
인쇄사 : 아 성 출 판 사
고려신학대학 연구, 전수과 학우회
607 부산시 서구 암남동 산 34
Tel ㉖ 3181-3